

지역 소식통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 회장
고창포럼 특강 나서

이연택 회장(전 대한체육회 회장 전 노동부 장관)이 18일 고창을 찾아 '한반도 첫수도 고창포럼 5번째 강사로 국가와 지방의 발전전략 그리고 스포츠'를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이연택 회장은 제34대 36대 대한체육회 회장을 역임하고,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한일 월드컵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으면서 한국 축구를 4강 신화에 올려놓은 주역이다. 이연택 회장은 "국제대회는 물론 전국대회까지 경우 단순 스포츠 행사에 그치지 않고 선수단과 가족 등이 개최지를 찾아 숙박과 함께 지역 관광명소 등을 방문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높은 파급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자체의 스포츠 마케팅의 성공 전략으로 "지역의 브랜드를 만들고 스포츠 산업 발전에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여 지역 브랜드와 맞춤형 종목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한국폴리우드 은희준 대표
요소수 100박스 기탁

(주)한국폴리우드(대표 은희준)에서는 18일, 최근 중국의 요소수 수출 제한으로 요소수 품귀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요소수 10리터 100박스를 부안군에 기탁하였다. 은희준 대표는 합성목재 및 디자인형 울타리 등의 제조업체로 부안농공단지내 소재된 (주)한국폴리우드의 대표로 활동하는 동시에, 20여 부안군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대표가 모여 조직된 단체인 부안농공단지협의회 회장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은희준 대표는 "어려운 시기,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기부하게 되었다"면서 "요소수 수급 부족으로 긴급한 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내년 예산 1조390억원 편성

올해보다 14%증가... 정읍시 일상 회복·민생경제 안정 집중

정읍시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성장 동력 기반 마련을 위한 2022년도 예산안을 정읍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읍시의 2022년 본예산은 2021년 본예산 9,116억 원보다 14% 증가한 1조 39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보다 1,274억원 늘어난 것으로,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167억원이 증가한 9,652억원, 특별회계는 107억원(17%)이 증가한 738억원이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 회복 지원과 민선 7기의 성공적 마무리, 그리고 정읍의 새로운 도약과 번영을 위한 미래 투자 확대에 중점을

뒀다. 또한 취약계층 보호와 일자리 사업, 재난 대응 체계 대비 미래 성장동력을 견인할 수 있는 현안 사업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주요 세출예산 사업으로는 자부재원 확보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체류형 관광 1번지 조성사업인 내장산 자연휴양림 조성(77억)과 정읍 문화유산 방문센터 건립(94억) 등 문화관광 분야에 730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살맛 나는 첨단경제 도시 건설을 위해 노후 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16억)와 제8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10억), 투자진흥기금 조

성(10억)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239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함께하는 복지·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초연금(862억)과 노인일자리(148억) 등 복지교육 분야에 2,680억원을 실증 시험포 스마트 온실 구축(14억)과 공익·쌀·밭 직불금(423억) 등 스마트형 농생명 도시를 만들기 위한 농업수산 분야에 1,990억원을 편성했다. 여기에 품격있는 안전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도로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에 1,330억원, 전기자동차 보급지원 등 환경 분야에 1,117억원을 편성했다. /정읍=김대환기자

하관수 서예가, 장애인문화예술대상 대통령 표창

충중한 서예 실력 후진양성·봉사활동... 장애인예술인식개선 공로

예향 고창군에서 활동하는 하관수 서예가가 제16회 장애인문화예술대상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18일 고창군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장애인문화예술대상 시상식에서 야전(野泉) 하관수 서예가(68)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하 서예가는 어릴적 소아마비로 인한 지체장애에도 불구하고 2010년 대한민국 서예한마당 전국최초대진 문인화 우수상, 올해 대한민국 미술대전 문인화 입성 등 서예 실력을 인정받았다. 하 서예가는 지역에서 음악과 미술의 재능을 두루 갖춘 만능 예술인으로 유명하다. 원광대학교 음악교육과를 졸업하고 고창남중학교 음악교사와 재직했었고, 고창남중 교장으로 퇴임

했다. 현재는 봉사활동(서예, 기타, 우쿨렐레, 중창 등 강의)을 통해 장애인예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민선 7기 고창군의 균형발전인 '평이근민(平易近民)'과 균형 앞 한국정자 '근민정(近民亭)'의 힘찬 글씨로 군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있다. 통하는 하관수 서예가가 제16회 장애인문화예술대상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18일 고창군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장애인문화예술

대상 시상식에서 야전(野泉) 하관수 서예가(68)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하 서예가는 어릴적 소아마비로 인한 지체장애에도 불구하고 2010년 대한민국 서예한마당 전국최초대진 문인화 우수상, 올해 대한민국 미술대전 문인화 입성 등 서예 실력을 인정받았다. 하 서예가는 지역에서 음악과 미술의 재능을 두루 갖춘 만능 예술인으로 유명하다. 원광대학교 음악교육과를 졸업하고 고창남중학교 음악교사와 재직했었고, 고창남중 교장으로 퇴임했다. 현재는 봉사활동(서예, 기타, 우쿨렐레, 중창 등 강의)을 통해 장애인예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청년UP센터' 개관 청년활력 새로운 거점

부안군은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거점공간인 '부안청년UP센터' 개관식을 1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안군, 부안군의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자와 청년들이 참석하여, 개관식을 축하해 주었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었던 개관식은 부안청년들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청년들의 진짜 이야기(토크쇼) 순으로 진행되었다. 식의 마지막에는 청년이 놀이도 되고, 살이도 되고, 해도 되는 청년친화

도시 선언으로 마무리 되었다. 토크쇼에서는 숨어있는 부안의 보석인 청년 3명이 참여해 부안과의 인연, 청년들 각자 경험을 바탕으로 부안군이 더 좋아졌으면 하는 의견, 청년UP센터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 하는 시간 이었고 건의사항에 대해 부안군과 부안군의회에서 답변해 주어 청년들의 호응을 얻었다. 부안청년UP센터는 지난해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5억과 군비8억 등 총8억원이 투입됐으며, 부

안읍 군청길 7에 연면적 261㎡의 규모로 내부공간은 라운지(카페 형식의 교류 장소 다목적 홀 용도), 세미나실(각종 회의, 프로그램 운영 용도), 촬영실(1인 미디어 촬영용도), 공동주방(간단한 요리 프로그램 진행 용도)으로 크게 4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운영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1시에 문을 열고, 저녁9시까지 개방을 하여 다양한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하였다. //부안=김석진기자



코로나19로 각종 미술 전시회가 연기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상황에서 컨테이너 미술관이 새로운 전시 대안으로 떠올라 눈길을 끌고 있다.

상설 'ㄷ·르 하미미술관' 개관

신태인 등 3개소 내년 2월 13일까지 기획전시 마련

코로나19로 각종 미술 전시회가 연기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상황에서 '컨테이너 미술관'이 새로운 전시 대안으로 떠올라 눈길을 끌고 있다. 정읍시는 지난 17일 전북 최초로 컨테이너를 활용한 간이 상설미술관인 ㄷ·르 하미미술관 3개소(신태인, 연지동, 수성동)를 구축해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ㄷ·르 하미미술관은 컨테이너에 유리 를 설치해 인이 훤히 들여다보이도록 만들어진 대면과 비대면을 절충한 작은 미술관이다. 시는 ㄷ·르 하미미술관 개관을 기념해 올해 정읍시립미술관에 수집된 신소장품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기획전시 '2021 신소장품' 전을 마련했다. 이번 전시는 17일부터 2022년 2월 13일까지 열리며 정읍지역 작가들을

포함해 총 12명 작가의 작품 12점이 출품된다. 전시구성은 장소별로 3개의 섹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PART 1(신태인)에서는 '계절의 인상'을 주제로 계절별 정읍의 풍경을 표현한 작품들을 살펴볼 수 있다. PART 2(연지) 주제는 '오랜 기억의 회상'이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무성서원의 가치를 지키고 보존하는 의미로 구현한 수목 작품을 포함해 정읍 문화의 특성을 표현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끝으로 PART 3(수성)은 '일상 속 세상'을 주제로 우리가 사는 주변을 비롯해 정읍사람들의 삶 속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ㄷ·르 하미미술관의 작품은 햇빛으로 인한 손상을 막기 위해 매일 오후 5시(동절기)부터 자정 12시까지 감상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유진섭 정읍시장, 공공비축미 수매장 방문 격려

유진섭 시장이 18일 갑곡면 공공비축미 수매 현장을 찾아 올해 쌀 작황과 매입상황을 점검했다. 또 벼 수확을 위해 한 해 동안 노력한 농업인들을 만나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유 시장은 "코로나19 확산과 이상기후로 인한 병해충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수한 쌀 생산에 전념해주신 농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쌀값 안정과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공공비축미곡(건조 벼) 매입품종은 산동진과 해풍 2개 품종으로 매입량은 총 6,051톤이다. 덕천면에서 지난 4일 매입을 시작해 12월 초까지 지역 내 23개 읍면동에서

매입할 예정이다. 산물 벼 매입은 지난달 초부터 시작해 394톤 매입을 완료했다. 종량은 톤백 포대를 기준으로 알곡 무게 80kg 단위다.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중간 정산금은 40kg당 3만원으로 수매 직후 지급하며 최종 정산은 매입가격이 확정되는 12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비치,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매입장 내에서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